

## Oceana의 연구 결과 참치 어업계가 4억1100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청새리상어 포획 암암리에 진행

Oceana,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회원국들이 포괄적으로 청새리상어 포획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

**Press Release Date:** December 12, 2022

**Location:** Washington, D.C.

**Contact:** Anna Baxter, [abaxter@oceana.org](mailto:abaxter@oceana.org)

Oceana가 의뢰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 어업을 관리하는 각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들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선박들이 대대적인 상어 포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4억1100만달러 상당에 이르는 상업적 목적의 청새리상어(*Prionace glauca*)를 포획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분야에서 처음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청새리상어 어획량이 대표적 참다랑어 3종 어획량을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새리상어가 전 세계 상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며 상어 지느러미 및 상어고기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종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관리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표결을 거쳐 청새리상어를 포함한 60종의 상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들 상어 어종들의 개체수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청새리상어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RFMO 관할 하에 2019년 설정된 어획량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 없이 포획되고 있다. Oceana의 글로벌 정책 담당 시니어 디렉터인 Philip Chou는 “청새리상어는 상어 어종 가운데 회복력이 높고 가장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해 개체수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적절한 관리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새리상어와 이들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는 장차 위험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청새리상어 어업 관리가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각 RFMO에 보고된 상어와 참치 어획, 거래, 관리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했다. Poseidon Aquatic Resource Management Ltd.가 주도한 연구진은 2019년 한 해 동안 20만미터톤에 육박하는 청새리상어가 합법적으로 포획되어 육상에 인도되었으며, 마리로 환산하면 700만마리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90%가 연승 어선으로 주로 구성된 대형 상업선단이 포획을 주도했으며 이들 선박의 74%는 원양어업 조업국에 기항했다. 청새리상어 포획량의 절반 가까이가 스페인과 대만 소속 선단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ceana의 연구 요약 및 보고서 전문은 [oceana.org/blueshark](https://oceana.org/bluesh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ceana의 해외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원양어선 활동 범위를 분석하고 해양 및 관련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Oceana의 Transparent Oceans Initiative](#)를 위해 기획되었다.